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5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9월 15일 (음력 7월 23일) 금요일

전남에 공장 하나 지으려는데…

'취업장사·땅장사' 악성루머만 횡행

"어디 기업 오겠어요"

"전남에 공장 하나 지으려는데 벌써 부터 채용비리 누명을 쓰게 됐으니 어쳐구니 없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3만평에 750억원을 들여 호남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남양유업 경영진의 하소연은 전국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쟁' 속에 지역 주민들이 가질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케 한다.

이제 겨우 터닦기 공사를 하고있는 이회사에 대해 나주지역에서는 '뒷거래'를 통한 신규직원채용설 등 근거없는 소문이 급속히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측이 신규로 채용할 직접 고용인원이 240여명 가량이나 되고 더구나 초봉이 2천300만원~2천500만원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주에서는 남양유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사례금을 주고받는 사례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씨의 경우 남양유업에 취업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모 정당인에게 5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남양유업 간부에게 돈을 주면 된다더라' '취업 브로커가 나주를 돌고있다' '사전 채용을 위해 회사측이 이미 이력서를 받고있다'는 등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 외지기업 돕는 풍토 조성했으면"

또 일부에서는 '남양유업측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 설 것을 미리알고 호남공장 부지를 금천면에 잡았다'는 말도 나오고있다. 혁신도시 논의 훨씬 전에 부지를 잡아둔 남양유업으로서는 '땅장사' 누명을 쓰게 되는 악성루머다.

이같은 소문을 파악한 남양유업측은 한마디로 지역사회 분위기에 기가 질린다는 반응이다. 한 간부는 "소문이 커진다면 나주시민들이 남양유업을 채용사례금이나 받아챙기는 회사로 볼것 아니겠느냐" 며 "누구로부터도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으고 공장부지도 경영여건을 고려해 결정된 것 뿐이다"고 밝히고 나섰다.

남양유업 호남공장 정의국 추진단장은 "생산설비가 갖춰지는 2007년 7월에 우선 20명을 채용한 뒤 8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기간을 정해 서류를 접수받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장영배 이장(57)은 "남양유업과 관련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기업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나주에 들어서는 외지기업을 돕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DJ "美 네오콘 북핵 악용"

〈신 보수파〉

6·25전쟁 美도 책임…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 해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회견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미·일 보수세력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봉쇄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그 골자다.

아울러 남북·북미관계 해법과 관련,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조속한 회담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국제문제전문 월간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한국어판 창간호 특별회견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앞에 가면 어린애 장난감밖에 안될텐데…"라며 "미국의 네오콘들이 속으로는 북한 핵에 겁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없다"며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했다. 중국을 미래의 '가상 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 및 미사일 실험을 구실로 MD(미사일 방어시스템)같은 군비확장을 하려 한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연결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9월19일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된 다음날인가 마카오 은행문제(북한 위폐문제)가 터져 오늘날 6자회담도 완전히 정지상태가 돼버렸다"며 위폐문제 발생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동정책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네오콘은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치듯 북한을 잘못되고 강경한 길로 몰아붙이고, 중국의 품으로 자꾸 밀어넣으면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정말 악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 딱 짜고 '신동맹체'라고 해서 가고 있고, 미국의 군수산업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팔아먹고 도처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측이 미사일 실험 등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촉구했다. 〈2면으로 계속〉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미 "北 6자복귀 공동조치"

양국정상 논의…FTA·비자면제 등 폭넓게 대화

한·미 양국 정상은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및 핵 해법에 대해 평화적 해결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참여정부 들어 여섯 번째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FTA, 미국 비자면제 등에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조치를 취한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13일 반기문 외교부장관, 송 실장과 미국측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실무회동(2+2)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와 내용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 "미국의 법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입장 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美 하원국제委 '위안부 결의안' 채택…日정부 규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 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처음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제출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반인간적이고 끔찍한 이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위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 및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20만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축제 들뜬 곡성 목화밭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곡성 겸면 목화축제'가 오는 16일~17일 겸면천변에 펼쳐진 명장자연학습장과 6천여평의 목화공원에서 열린다. 목화공원을 찾은 주부들이 어린시절 목화밭의 추억에 잠겨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